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의 특성과 창작방도

부교수 백광명

1. 서론

서사시나 서정서사시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지난 시기에 많이 진행되어왔으나 그에 비해 볼 때 아동서사시나 아동서정서사시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심화시킨 예는 별로 없다.

이전에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의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창작정형을 취급한 석사학위논문 《해방후 아동서사시문학연구》(리순룡, 2014)가 발표되었다.

론문에서는 지난 기간에 창작된 사상에술성이 높은 수많은 아동문학작품들 가운데서 그들의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아동서사시들의 창작에 주목을 돌리고 그에 대한 연구를 전면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론문에서는 지난 시기에 창작된 아동서사시 및 아동서정서사시들의 창작정형을 체계화하여 정립하는데만 그치고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의 본질과 특성, 그 창작에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취급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지난 시기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창작에 대하여 언급한 기타 소론문들에도 아동서사시와 아동서정서사시창작과 관련한 이론적연구와 그 결과가 반영된 실례는 없다. 이로 하여 지난 시기 아동서사시 및 아동서정서사시창작실천에서는 적지 않은 애로가 제기되었다.

최근에 아동서사시창작부문에서 시점을 어른인 시인의 시점으로 굴절시켜주지 않고 어린이의 시점으로 직접 주다보니 어린이의 시점상제한성으로부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내면 심리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는것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로된것도 그 실례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본론문에서는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의 본질적특성과 그 창작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방도들을 밝혀줌으로써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창작실천에 적극 이바지하려고 한다.

2. 본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서정시와 함께 서사시도 쓰고 서정서사시도 써야 하며 서정시에서도 어느 한두가지 형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가지 형식을 다 리용하여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08~309페이지)

아동서사시는 성인서사시와 같이 서사시라는 점에서는 다를바 없다. 아동서정서사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시점에 있어서, 그 독자대상에 있어서는 성인시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아동서사시와 아동서정서사시는 형태상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지만 그에 앞서 다같이 아동문학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론에서는

성인시문학일반과 구별되는 아동서사시와 아동서정서사시의 특성에 대하여 먼저 보기로 한다.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의 특성은 우선 주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한다는 데 있다.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은 중요한 역할을 논다.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읽는 과정에 사람들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에 접하게 되며 새로운 생활을 위한 투쟁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특히 새것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빠르며 동경심이 강한 어린이들은 혁명적인 아동문학작품들을 통하여 나 어린 주인공들의 혁명가적품성을 본받게 되며 그들처럼 살기 위해 애쓰게 된다. 어린 독자들은 자기와 나이가 같거나 비슷한 주인공들의 모범에서 더 큰 감동을 받게 되며 그들의 투쟁과 생활을 적극 지지하고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창작에서도 성인문학과 마찬가지로 어른들을 그린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생활이 어른들의 생활과 뗄수없이 련결되어있고 아이들이 어른들의 적극적인 영향속에 성장하고 발전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에서 그리는 어른의 성격은 성인서사시나 서정서사시에서처럼 꼭 같지 않다. 그 차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에서 맺어지는 인물관계가 성인시문학에서와는 달리 연령심리적특성이 전혀 다른 아이들과 그들의 동심을 리해하는 어른들사이의 관계로 맺어지기때문이며 또한 아동서사시나 아동서정서사시에 설정되는 어른들의 성격도 다른아닌 아동주인공들의 성격발전을 위하여 필요한것이고 또 작품에도 그렇게 형상되기때문이다.

아동서사시나 아동서정서사시 역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인것만큼 어린이들의 생활세계를 떠나 그 어떤 어른들만의 생활에 대하여 취급할수 없으며 어른들의 생활이 반영되는 경우에도 철저히 아동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 그들의 지적성장에 필요한것으로 선택되고 형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의 특성은 또한 형식상으로는 작품전반에서 어른의 시점이 리용되고있는듯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시점에서 묘사대상을 그린다는데 있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여 그의 시점에서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이다. 따라서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 역시 어린이의 시점에서 형상을 창조한다.

그러나 백두산절세위인들을 형상한 서사시들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어른들과의 관계가 많이 펼쳐지는 아동서사시와 아동서정서사시의 형태적특성은 그 창작에서 어린이의 시점을 어른의 시점으로 굴절시켜주는 수법 다시말하여 형식상 어른의 시점을 빌리나 실지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시점으로 대상을 묘사하는 수법을 활용할것을 요구한다.

형식상 어른의 시점을 빌리는 수법은 시점을 성인시인—어른에게 주고 실지로는 어린이의 시점에서 묘사대상을 그리는 수법이다. 이 수법의 우월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어린이의 시점에서는 충분히 보여줄수 없는 어른들의 내면세계도 깊이있게 개방하여 보여줄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

길남이의 잠꼬대소리

무어라 웅얼웅얼...
 (아니 또 엄마꿈을 꾸나?
 애가 아파서 그럴가? ...
 아플 때면...
 엄마생각이 더 나는 법이지)

촉은한 생각에 잠기시여
 잠든 얼굴 그냥 들여다보시더니
 (...계동무가 얼마나
 안아보고싶고
 업어보고싶어하던 아들인가

충을 안았던 그 품에
 배낭을 메였던 그 등에
 이 아들의 손길이
 이 아들의 숨소리
 얼마나 그리웠으랴

내 오늘
 네 머리맡에 있는줄 알면
 너의 엄만
 땅속에서라도
 기뻐 어쩔줄 모를거야...)

아 어머님의 간절한 마음
 갓난애를 안듯
 마음속으로 길남일 안으셨구나

행복의 상상봉으로
 데리고가시는듯
 백두밀영 헤쳐오신 길을
 다 돌고싶으신 어머님

백두산의 만병초도 꺾어주고싶고
 천지물에 꼬리치며 놀던
 애기별도 건져주고싶으셔라
 ...

에서는 혁명전우의 아들인 길남이의 앓는 머리말을 지켜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내면심리세계를 정서적으로 그려주고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키울 가슴에 혁명의 총대를 잡고 항일전의 피어린 격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한목숨바친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알면 땅속에서라도 기뻐서 어쩔줄 모를것이라는 어머니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리묘사는 참으로 절절하면서도 가슴뜨겁게 안겨오고있다. 이렇듯 희생된 전우의 살불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어머니의 숭고한 내면세계가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방불하게 안겨올수 있는것은 아동서사지에서 형식상 어른인 시인의 시점을 빌리는 수법을 잘 활용하였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형식상 시인인 어른의 시점으로 서사적화폭을 펼쳐나가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어린이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감동될수 있도록 그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어머니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강조해주었기때문이다.

민병준의 아동서사시 《흥하는 나라》와 《꽃세상》, 아동서정서사시 《아이들의 총》 그리고 림금단의 아동서사시 《새싹이 움틀때》와 아동서사시 《사랑의 노래》, 윤태빈의 아동서정서사시 《다래굴의 전설》 등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는 전부 처음부터 마감까지 어른의 시점을 설정한것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동심에도 맞고 그들의 감정세계에도 부합될수 있도록 어른의 시점으로 굴절시켜주었을뿐이다.

아동서사시와 아동서정서사시는 다같이 아동문학이라는 점에서는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서로 뚜렷이 구별된다.

아동서사시는 시대적 및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이나 생활속에서의 동심적화폭을 통하여 아동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 큰 형식의 아동시문학이다.

아동서사시에서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동심적으로 보여주며 사건과 극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한다.

즉 아동서사시는 서사성과 서정성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하여 객관적성격과 동심적화폭을 그려내는 동시에 묘사되는 대상에 대한 시인자신의 동심적체험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서사적형상을 창조한다.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체현한 나어린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줄거리를 기본으로 극성을 보장하면서 감정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성격의 전형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형상을 꽃피운다. 이러한 류형의 아동서사시들로서는 림금단의 아동서사시 《새싹이 움틀때》와 민병준의 아동서사시 《꽃세상》, 박향희의 아동서사시 《가자, 백두산으로》 등을 들수 있다.

아동서사시형상에서는 서사성과 서정성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수적이다. 서사성과 서정성은 그 어떤 동등한 량적관계로가 아니라 시문학교유의 특성을 원만히 살리는 방향에서 필요한 정도로 결합해나갈수 있다. 즉 서사성이 우세를 차지할수도 있고 서정성이 우세를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서사적요소가 우세한 경우에도 그것은 반드시 서정성의 바탕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만일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아동서사시는 형식상 시처럼 보일뿐 소설문장을 토막낸것과 같이 시로서의 풍격과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아동서사시의 특성은 우선 역사적으로 폭넓고 시대적으로 의의있는 사변이나 생활의 동심적인 화폭을 통하여 아동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한다는데 있다.

아동서사시의 소재는 아동서사시자체의 형태상특성으로 하여 하나의 시대를 포괄하는 거대한 사변이나 생활속에서 취하게 된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소년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과 투쟁이야기는 그자체가 어린

독자들에게 불굴의 용감성과 슬기를 안겨줄수 있는 하나의 흥미진진하고 의의있는 문학적 이야기로 된다.

해방후에 창작발표된 아동서사시의 첫 작품이 바로 소년빨찌산 서강령의 투쟁과 위훈을 형상한 아동서사시 《소년빨찌산 서강령》(김학연, 1953)이라는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처럼 아동서사시에서는 우리 시대가 절박하게 요구하는 가장 의의있고 심오한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하여야 하며 시대의 주도적인 성격을 체현한 아동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통하여 그에 응당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잘 구현된 아동서사시들로서는 림금단의 아동서사시 《사랑의 노래》, 윤동향의 아동서사시 《봉화대의 딸》 등을 들수 있다.

아동서사시의 특성은 또한 형상창조에서 극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아동서정서사시창작에서보다 더 중요하게 제기된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사시는 서사적인 성격이 강한 시이므로 극성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서사시에서는 서사적인것과 함께 극성이 잘 안반침되어야 아동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이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흥미진진한 세계로 펼쳐질수 있다. 또한 서사적인 이야기나 인물성격의 서정적인 깊이도 정확히 보장할수 있다.

대체로 창작실천에서는 극적사건과 얹음새가 강한 작품(송축서사시는 제외)들을 가리켜 서사시라고 부르고 일관한 사건선이나 얹음새는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시인의 주정적인 묘사로 객관적인 시대와 생활의 화폭을 펼쳐보이는 작품들을 가리켜 서정서사시라고 말한다.

아동서사시 《소년빨찌산 서강령》에서는 원쑤와 직접 대결한 비상한 극적정황을 시종 일관 예리하게 끌고나가면서 동시에 동심에 맞게 영웅적행동을 뚜렷이 보여줄수 있도록 이야기선을 굵게 조직하고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인물선과 극성으로 충만된 장면들을 논리적으로 련결시켜 이야기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인물형상의 진실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있다.

주인공 서강령과 언제나 적극적인 명남이와 희숙이, 의지가 연약한 덕조, 일시나마 동요하는 두하와 일관이와의 관계를 극적으로 맞물려 그들의 중심에서 소년들모두를 애국적인 투쟁의 길에 묶어세워나가는 강령이의 형상을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다음으로 아동서정서사시의 특성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아동서정서사시는 하나의 자그마한 극적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하여 아동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며 그에 대한 아동시인의 동심적주정을 강하게 토로하는 시이다.

아동서정서사시는 아동서사시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있지만 그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도 가진다.

아동서정서사시는 아동시인의 사상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서사적인 생활묘사보다 일반화된 동심적감정으로가 강하게 주어진다는데 그 중요한 특성이 있다.

푸르러라, 맑아라
높은 가을하늘
송이송이 꽃구름
곱게 피여 둥둥

들국화 향기로운
언덕을 지나
단열매 무르익는
과수원 지나

어머님은 걸으시네
갑성이를 데리시고...
기쁨에 넘치시여
행복에 겨우시여

어서 먼저 걸으라고
손저어 멀리 가리키시다가도
한품에 뜨거이 안아주시며
어머님 가시는 곳 그 어데일가
...

—아동서정서사시 《아이들의 총》중에서—

이것은 아동서정서사시의 서문이다. 보는바와 같이 서문에서의 서사적화폭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온갖 신고끝에 유격대 기관총수의 아들 갑성이를 찾아내시여 그를 데리고 만경대혁명학원으로 가시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서사적인 생활내용은 아동시인의 감정세계에 비끼여 서정적으로 펼쳐지고있다.

이처럼 아동서정서사시에서는 이야기가 서사적흐름을 타고 흘러가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시인의 주정화된 사상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서정의 노래가 진하게 습배여 울려나오는 다감하면서도 동심적인 생활화폭으로 그려지는 특성을 가진다.

아동서정서사시에서는 큰 서사적인 화폭을 파고드는것보다는 하나의 길지 않은 전형적인 사건이나 이야기에 일정한 사회적문제성을 심어주면서 그것을 시적으로 일반화할수 있는 전형적인 생활속에서 아동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아동서정서사시는 서사적인 생활을 일정한 정황과 계기속에서 서정적으로 그린다.

...
나래를 펼친듯이
거리, 거리들을 지나서
예가 어딜가
어딜 왔을가

넓고도 환한 방
해살 비치는 큰 책상도
정옥이를 반기여
병글병글 웃음짓는듯

하나, 둘, 셋…
창문의 유리도 세여보고
화분에 꽃나무도
무슨 꽃일까 저 혼자
알아맞춰도 보며

눈앞에 떠오르는 거리, 거리들
어느덧 저도 모르게
무릎위에 써보는 글씨
문수거리, 창광거리, 1백화점, 빙상관…
재미나게 자꾸만 써보기도 그 몇번

함께 온 간부선생님
서둘러 들어오누나
《정옥학생! 이제
아버지원수님께서
너의 붓글씨를 봐주시러 나오신다》

《예?!…》
너무도 뜻밖에
뜻밖의 그 말에
자리에서 일어난 정옥이
…

—아동서정서사시 《꽃글씨》(김영수)중에서—

보다싶이 이 시에서도 꼬마서예가 정옥이가 처음으로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뵙는 장면을 구체적인 생활계기속에서 서정적으로 그려주고있다.

아동서정서사시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서사적화폭을 창조함에 있어서 다면적이고 복잡한 인물관계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주제사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한두명의 인물들만을 구체적으로 성격화하여 형상을 창조한다는데 있다.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아동서정서사시는 아동서사시에 비해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이야기기줄거리조직이 시인의 느낌속에 극적으로 집중화되고 감동적으로 엮어지는것이 특징적이다.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형상창조에서 극성을 잘 보장하는것이다.

아동서사시창작에서 제기되는 극성탐구문제는 어린이들의 흥미문제와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아동서사시가 일정한 이야기줄거리를 타고 짜이게 흘러간다고 하여도 거기에 극성이 안반침되지 못하면 어린 독자들이 잘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동서사시가 어린 독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는 문학형태로 되자면 반드시 극성문제, 흥미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작품이라면 첫째도 둘째도 그들속에서 읽히우는것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경우에 문학작품을 재미에 끌려 읽는것이 보통이다.

그들은 사고가 단순하고 지속성이 미약하기때문에 작품을 읽다가도 재미가 없으면 인차 싫증을 느끼고 덮어버리게 된다.

특히 아동서사시와 같은 긴 형식의 작품에 재미가 없으면 그것은 벌써 향기를 잃은 꽃과 같은것이어서 꿀벌들이 날아들리 만무한것이다.

아동서사시의 사건, 이야기줄거리는 시작과 끝을 가진 재미있는 이야기로 되어야 하며 동시에 아이들이 손에 땀을 쥐고 작품의 세계로 빠져들수 있게 하는 극적인 이야기로 되어야 한다.

극성은 극적인것에서 우러나오는 강렬한 정서이다.

극성은 사건의 첨예성과 그에 대한 인물들의 체험의 깊이에서 생겨난다. 예술작품에서 사건과 인물들의 체험세계가 첨예한 사회적문제성을 안고있을뿐아니라 심각한 의미를 띠고 극적으로 예리하게 형상되었을 때 비로소 극성이 흘러나오게 된다.

극성을 잘 보장하여야 어린이들을 작품의 세계에로 깊숙이 끌어들여 그들이 작품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더 잘 받아들이게 할수 있다.

극성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미학정서적작용력이 매우 강하다. 어린이들이 작품을 보면서 긴장되거나 흥분되어 눈시울을 적시거나 감격에 목매이며 분노에 치를 떨고 주먹을 부르짖는것 등 여러가지 정서적체험을 하는것은 작품에 체현된 극성, 극적정서가 미친 작용력의 결과이다.

중요한것은 인물들사이의 극적관계를 잘 맺어주고 깊이있게 파고드는것이다.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에서 극성이 얼마나 심오하고 풍만하게 우러나오는가 하는것은 감정조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비상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조성된 극적정황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체험하는 감정세계의 섬세한 움직임과 그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극적분위기와 정서를 옹계 판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감정을 주도세밀하게 축적하고 제때에 폭발시키는것은 극성의 깊이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아동서사시 《새싹이 움틀때》에서는 항일유격대에 입대한 어머니를 찾아 헤매이던 길남이가 자기 오누이들을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안아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품에 안기는 내용을 문학적이야기로 하고있다. 이 아동서사시의 극성은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동생 길녀와 김정숙어머님의 품을 알아뵈지 못하고 먼데서 혈육의 정을 찾아헤매는데 있다.

아동서사시 《사랑의 노래》에서는 소경이였던 은별이가 눈을 뗐다는 이야기를 문학적이야기로 하고있으나 그자체가 그대로 극적인 이야기로 되는것은 아니다.

일본땅에서 눈이 멀게 된 은별이가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심정을 체험하고있을 때 뜻밖에도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뵈고 원수님의 사랑으로 수술을 하게 되며 끝내는 밝은 눈을 되찾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원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원수님의 딸, 농장의 딸로 다시 태어나 자신을 바쳐가는 이야기, 바로 여기에 인간문제의 강한 극성이 심어져 서사시의 줄거리, 은별이의 운명선을 관통하는 핵으로, 작품의 극적견인력으로 되었던것이다.

이렇게 주인공의 성격과 서사적 흐름의 전과정을 관통하는 중대한 운명문제를 핵으로, 극적인것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서사시적 화폭들을 이끌고나가는 여기에 아동서사시의 생명과도 같은 극성을 적극 살려 그것이 아동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가 있다.

아동서정서사시창작의 경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아동서정서사시 《다래골전설》(윤태빈)도 아동서정서사시로서의 극성을 잘 살림으로써 작품의 흥미를 더욱 부각시킨 작품이다.

작품에서 훈이가 앓고있는 샘물집 할머니에게 드릴 다래를 따다가 군사놀이에 지각하게 되자 참모장은 군사놀이대렬에서 떨어지라고 명령한다. 좋은 일을 하다가 조금 지각한 걸 가지고 처벌을 주는 참모장에 대한 고까운 마음을 안고 씩씩거리던 훈이는 인정많은 어린신 김정일대장에게 알려드리면 자기를 틀림없이 도와줄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군사놀이도 진짜 전투라고 생각할 때 훈이는 군대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규률은 군대의 생명과도 같다고 엄하게 꾸짖으신다.

...

《...규률을 못 지키는 군대가
싸움에서 이길수 있는가
그런 군대가 어떻게
우리 부모들 원쑤 갇을수 있는가

군대가
규률을 위반하면서 딴
그런 다래를
누가 먹겠다 하겠는가

그런 다래
할머니는 잡숫지 않는다
그런 다래를
우리 인민은 먹지 않는다》

훈이에게 엄한 처벌 내리신
김정일대장
고지습격전투
명령을 내리시네

...

이렇게 아동서정서사시에서는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강한 극적집중성을 보장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극적기대선과 흥미를 돋구어주고있다.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의 구성은 극적집중성을 가져야 한다. 구성이 극적집중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작품에 반영하는 등장인물들의 수를 극력 줄이며 기본주인

공의 성격을 부각시키는데로 인물형상을 집중시키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성을 평면화하여 늘어놓지 말고 함축과 비약을 통해 전형화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며 구성의 모든 요소들을 립체적으로 조화롭게 맞물려나가야 한다. 비본질적이며 형상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내용들은 대담하게 삭제해버리고 전체와 부분이 호상 조화를 이룰수 있게 매장들이 세련되고 완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야기줄거리조직에 강한 극적집중성을 부여하고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동심에 맞는 감정의 흐름, 극성을 잘 보장한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만이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생활의 길동무로, 그들의 참된 교양자로 될수 있다.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주정토로를 동심에 맞게 잘 하는것이다.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에서는 형식상 어른의 시점을 가지고 어린이의 관점과 립장에서 서사적화폭을 창조하고 서정의 흐름을 펴나가게 된다. 그러나 창작실천상에서는 시인인 어른의 시점을 빌린다고 하면서 왕왕 동심에서 벗어나 성인의 주정토로를 그대로 내뿜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군 한다.

아동서사시에서의 주정토로는 아동주인공을 비롯한 묘사대상이 아동시인에게 일으킨 정서적체험세계의 로출이다.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이나 아동주인공, 사건뿐아니라 지어 자연이나 기물 등 인간과 그의 생활과 관련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작가가 체험한 열렬한 감정세계를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대한 아무러한 고려도 없이 《그대로》,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실패를 면할수 없다. 형식상 어른의 시점을 빌리는것도 말그대로 어린이의 시점을 어른의 시점으로 굴절시켜주는것이 기본인것만큼 반드시 어린이의 관점과 립장, 어린이의 키높이에 맞는 주정토로로 되여야 한다.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에서 주정토로는 묘사문과 달리 어린 독자들의 감정세계에 직접 작용하여 그들의 사상미학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중요한 형상적기능이 있다. 때문에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창작에서의 주정토로는 철저히 어린이들의 관점과 립장에 든든히 발을 붙인 동심에 맞는 주정토로로 되여야 한다. 어른들의 심리를 개방하는 주정토로형상인 경우에도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감득될수 있도록 그들의 리해수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아동서사시 《맑은 하늘》(림금단)에서의 한 부분을 실례로 놓고보자.

적기의 맹폭격이 그칠줄 모르던 가렬한 전쟁의 어느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귀동이네 시간표에 체육과목이 없는것을 아시고 못내 가슴 아파하시며 교사포화력을 집중시켜 마을의 하늘을 지키게 하시고 학생들의 운동회를 열도록 하신다. 세상에 다시없을 특별명령을 받아안은 포부대 대대장의 감격넘친 심리세계에 직접 뛰여든 시인은 서정적주인공의 격앙된 감정세계를 다음과 같이 펼치고있다.

...

아, 대대장아저씨
그만 깜짝 놀라
가슴은 널뛰듯했네
하늘땅도 너무 기빠
새 세상이 열린듯

좌-좌- 바람을 일쿠며
설레이었네

대대장아저씨
어찌 이런 명령을
상상이나 했을가
학교에 갓 들어간
귀여운 아들을
고향집에 두고온 대대장

너무도 천만뜻밖이어서
자기가 군인이라는것도 잊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드렸다누나

감격에 목메여
눈물이 글썽해진 대대장
다시금 심장이
쿵쿵- 황황-
승엄하게 뛴뛰고있었지

이 세상이 생겨
이기고 지는 전쟁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단한번도 없었던다
그 어떤 걸출한 장군도
영웅호걸도
이런 명령 내린 력사는

아, 이 명령에
산천초목도 머리숙이고
포연서렸던 검은 하늘도
맑고 푸르게 열리어지더라
고사포대대장의
가슴속 어디선가는
벌써부터
아이들이 떠들썩

즐거운 웃음소리
노래소리, 복소리
맑게 개인 푸른 하늘가로
나래쳐오르는
어린 불새들의 퍼덕임소리...
...

우의 주정토로는 어른인 포부대 대대장의 심리세계를 직접 개방하고있지만 어린이들의 관점과 립장에서, 그들의 리해정도에 맞게 동심적으로 펼쳐지고있다.

이렇듯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창작에서는 형식상 어른의 시점을 빌리면서 동시에 어린이의 관점과 립장에서 그들의 감정정서에 맞게 주정토로형상을 잘 결합시켜나감으로써 어린 독자들이 작품의 세계에로 깊숙이 끌려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아동주인공의 전형적인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날수 있는 동심적인 세부를 잘 탐구하는것이다.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가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훌륭한 형상을 펼치자면 이야기 줄거리조직에서 극적집중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어린이들의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날수 있는 뜻깊고 재미있는 세부들을 적극 찾아내어 잘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물현상에 대한 직관적표상능력이 특별히 강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동심에 꼭 맞는 생동하고 진실한 생활세부들을 찾아내어 섬세하면서도 깊이있게 그려내는 문제는 동심에 맞는 시형상세계를 펼칠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방도로 된다. 풍만하면서도 짜인 사상감정을 산문에 비해볼 때 상대적으로 작은 용적의 시구들에 담아 집약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시문학의 묘사적특성과 관련하여서도 세부형상문제는 스쳐지날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서사시가 일정한 이야기줄거리를 통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을 보여주는 서사적묘사방식에 의거한 문학형태라고 하여도 소설에서와 같이 인물의 내면심리세계나 일화는 물론 뒤 생활까지도 자유자재로 보여줄수 있는 그런 방대한 묘사적공간과 형상적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며 더우기 서정성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하는 특성으로부터 작은것을 통하여 큰것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세부의 탐구가 중요한 문제로 나설수 없을수 없다.

그러면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에서의 세부는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동심을 안고있는 세부, 동심적성격을 두드러지게 형상해낼수 있는 전형적인 세부로 되여야 한다.

림금단의 아동서사시 《사랑의 노래》, 《새싹이 움틀때》와 민병준의 아동서사시 《홍하는 나라》와 《꽃세상》 그리고 민병준의 아동서정서사시 《아이들의 총》, 윤태빈의 아동서정서사시 《다래굴의 전설》 등은 동심적인 생활세부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아동서사시 《사랑의 노래》에서 무지개세부와 종다리세부, 아동서사시 《새싹이 움틀때》의 귀밀떡세부 등은 작품의 이야기전반은 물론 주인공들의 성격까지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는 함축되고 간결한 세부의 전형적인 실례들이다.

푸르른 하늘에서 《뻗쫙 쪼르르》, 넓고 넓은 대지우에서 《뻗쫙 쪼르르-》!

종다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아동서사시 《사랑의 노래》의 주인공 은별이는 종다리의 노래를 사랑한다.

그리고 종다리를 무척도 보고싶어한다. 그러나 광명을 잃은 은별이가 어떻게 고운 노래부르는 종다리의 아름다운 모양을 볼수 있으랴. 종다리의 퍼덕임, 이는 광명을 찾고 대지를 마음껏 날고싶어하는 은별이의 마음의 퍼덕임이다.

그러던 은별이가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속에 두 눈을 뜨고 다시금 광명을 되찾는다. 어둠의 장막을 뚫고 창공높이 날아오른 《종다리》, 사랑의 요람속에 갓 태어난 행복의 어린 새! 어둠속에 갇혔던 눈먼 새는 이제서야 행복의 나래를 펴고 종다리가 되어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난다. 그렇게도 보고싶던 아름다운 하늘, 그렇게도 날고싶었던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을...

무지개세부 역시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한 훌륭한 세부, 동심이 비낀 의미심장한 세부이다.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 이렇게 소리치면서도 은별이는 무지개를 볼수가 없었다. 인호랑, 순이랑 동무들이 말해주는 무지개를 제나름으로 곱게 곱게 그려보는 은별이. 여기에는 자기가 안긴 아름다운 조국의 현실을 못견디게 보고싶어하는 은별이의 안타까움이 동심적으로 깃들어있다.

어느덧 은별이는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속에서 수술을 하고 눈을 뜬다.

그러나 은별이는 다는 알수 없었다. 개학날전으로 꼭 눈을 띄워주자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주신 바로 그날 밤 아버지원수님께서 손수 7자루의 《꽃벌》연필을 꺾고계신줄.

빨간색, 감색, 노란색, 파란색 ...

앞못보는 은별이가 눈을 뜨면 이 세상 고운 색깔 모두 보여주시려고, 한꺼번에 모두 안겨주고싶으시여 일곱색 무지개빛으로 연필색갈까지 고르신 그 사랑을 다는 알수 없었던 은별이였다.

정녕 아버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곱고 고운 칠색무지개가 되어 은별이의 필갑속에, 달랑달랑 새 책가방속에, 아니 행복으로 물결치는 그의 가슴속에 소중한 자리잡았던것이다.

대학추천의 길을 뒤로 미루고 농장길로 달려오는 은별이의 머리우에 또다시 찬란한 무지개가 비껴흐른다.

...

그 무지개연필
일곱자루 다 닳도록
어린 가슴에 새겨둔
충성의 속다짐 자라고자라나
아, 오늘은 푸른 하늘에 피어났는가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

한끝은 아버지원수님품에
또 한끝은 원수님 우러러 따르는
은별의 티없이 깨끗한 심장속에

줄줄이 사랑의 색동다리 났구나
다함없는 충성의 색동다리 났구나
...

보는것처럼 은별이가 상상속에서 제나름대로 그려보던 갈망의 무지개가 원수님의 사랑속에서 7자루의 《꿀벌》연필과 함께 행복의 무지개로 피어났고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포전으로 달리는 은별이의 맘처럼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다시 충정의 무지개로 비껴흐른다.

이것은 그대로 그의 성격발전과정을 구획지어주는 동시에 작품의 사상예술적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형상의 효과적인 지지점으로 되고있다.

아동문학에서는 이와 같이 정적인 묘사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인상적이며 특징적인 묘사를 주는 생동하면서도 감각적인 세부들을 간결하게 그려내는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아동서사시 《새싹이 움틀때》의 귀밀떡세부도 작품의 주인공 길남이의 심리세계를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인상깊은 세부이다.

엄마없는 길남이에게 있어서 귀밀떡은 어린시절의 애달픈 추억이고 그리운 엄마의 사랑에 대한 갈망의 상징이다. 아무리 짜지게 가난하여도 생일상에만은 어머니가 꼭꼭 올려주곤 하던 귀밀떡, 김정숙어머님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며 길남이의 어머니가 눈물겹게 이야기하던 귀밀떡, 그래서 어머님의 작은 수첩 동그라미안에 고이 간직되어있던 그 귀밀떡이다. 이 귀밀떡을 학원에서 맞는 첫 생일날 원아들의 친어머니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손수 차려주실 때 길남이는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는다.

이렇게 작은 하나의 세부이지만 그속에는 길남이의 눈물겨운 어제날의 추억이 있고 어머니의 품을 그리는 절절한 소망이 응축되어있으며 활짝 피어나는 오늘의 행복까지도 깃들어있다.

민병준의 아동서사시 《꽃세상》에서도 구두세부를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불면불휴의 로고에 눈굽적시는 우리 어린이들의 충정의 마음을 인상깊게 반영하고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깜빡 잠들었다가도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늘 먼저 달려나가 반겨 맞아드리고 아침이면 깨끗이 닦아놓곤 하던 아버지의 구두! 그러던 아동주인공 혁이가 교향마을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먼지오른 구두를 보며 절로 눈물이 흘러나와 장군님의 구두에 방울방울 얼룩을 남겨드린다. 그러는 혁이의 등을 가벼이 쓰다듬어주시며 그러지 말라고, 《네 얼굴이 밝아지고/ 네 구두가 번쩍이니》 자신께서는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이처럼 작품에서는 혁이 아버지의 구두와 위대한 장군님의 구두, 번쩍이는 구두와 먼지오른 구두라는 함축되고 집약적인 대조적인 세부형상을 통하여 작품의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아동서정서사시 《아이들의 총》에서 연필세부나 윤태빈의 아동서정서사시 《다래굴의 전설》에서 다래세부 역시 아동주인공들의 성격을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과 동심에 맞게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데서 좋은 경험을 창조한 본보기로 된다.

윤태빈의 아동서정서사시 《다래굴의 전설》에서는 다래세부를 통해 주인공 훈이의 성

격발전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샘물집할머니에게 드린다며 다래를 따다가 군사놀이시간을 어겨 엄한 처벌을 받고 놀이에서도 제명된 혼이를 생각하며 휴식시간에 나으리신 **김정일**대장께서 벼랑을 뚫으며 덩굴을 헤집으며 따오신 다래, 그 다래가방을 안고 샘물집할머니를 찾아가며 흘리는 혼이의 눈물은 꼬마군대의 규률을 지키지 못한 자책이였고 모범대원이 될 굳은 맹세였으며 **김정일**대장에 대한 고마움이였다.

바로 이런 세부들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간직되어 그 빛을 잃지 않는 보석과 같은 세부들이다. 크기는 비록 작아도 그속에서 환기되는 사상감정은 아이들의 심장을 녹여낼만큼 크고 강하다.

우리는 사고가 단순하고 지속성과 인내성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작품을 읽다가도 재미가 없으면 인차 싫증을 느끼고 덮어버리는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극적집중성이 강한 이야기줄거리, 동심적인 주정토로의 강화,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날수 있는 세부들을 적극 탐구하고 활용해나감으로써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할것이다.

3. 결 론

본론문에서는 이상과 같이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의 본질적특성과 그 창작에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을 실천적견지에서 연구분석하였다.

그러나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창작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형상을 서사시적화폭에 모시는데서 주인공의 주선설정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덕성이야기를 주선으로 놓고 형상을 창조할것이 아니라 어린 아동주인공의 운명선과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치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안겨오도록 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상 어른의 시점을 빌리는 수법을 리용하는데서도 동심에 맞게 형상을 잘 창조하도록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해보아야 한다. 형식상 어른의 시점을 빌리는 수법을 리용한다 할지라도 목적은 어디까지나 동심에 맞는 서사적화폭을 창조하자는데 있는것만큼 어린이의 관점과 립장, 그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시점의 굴절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에서 어른의 성격과 심리를 개방하여 보여줄 때에는 어린이의 사고방식과 수준을 벗어나지 말고 철저히 그에 립각하여 서사시의 동심적화폭을 옳바로 창조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도 보다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아동서사시, 아동서정서사시창작에 대한 리론실천적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시작품들의 창작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